

지역 최초 HACCP 인증

남원시 이백면 오가네참부각

남원시 이백면에 위치한 오가네참부각(대표 오미선)이 지역 부각제조업체로는 최초로 소규모 HACCP 인증을 취득했다.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에 소속된 오가네참부각은 화학조미료, 색소,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웰빙 부각으로 유명해지면서 KBS VT특공대와 6시 내고향에도 출연한 바 있는 우수 사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 부각은 국내 유통량의 60~70%를 책임질 정도로 고유의 맛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기와 명성에 걸 맞는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대표 이환중)는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2년째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남원시 부각 사업장의 위생 수준은 비전문가의 관리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 오가네참부각 사업장에 최신식 부각 튀김기 및 건조기, 금속검출기를 지원하고 HACCP 컨설팅 및 지도를 통해 시 최초로 HACCP 인증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HA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남원시 오가네참부각은 화학조미료, 색소,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웰빙 부각으로 유명해졌다.

Points)의 품질관리, 식품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HACCP 인증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남원시 또한 HACCP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남원 부각은 금년에 전년 대비 2.5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특산품으로,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모 아이

돌 가수가 부각을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더욱 인기가 상승했다.

한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각제조업체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남원부각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임을 널리 홍보하는 등으로 부각 생산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 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음식점 그릇 확 바뀐다

그릇교체 사업 1억원 지원

순창군이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 경영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9월에 있었던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관내 소상공인의 그릇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지원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정주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또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내 음식점들의 환경개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순창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릇을 친환경 그릇으로 교체할 시 총 사업비 50%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가 최근 2년 이상 순창군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창업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자는 5일부터 22일까지 가까운 해당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스모스 꽃길 달려요

임실군 덕치면 꽃길 자전거 애호가 호응

임실군 덕치면에 코스모스 꽃길이 열려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면은 지난 8월 회문~물우마을 구간 자전거 도로 2km 구간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사회단체와 함께 코스모스 80,000주를 식재했다.

섬진강 상류인 덕치면은 진피마을,

천담마을, 구담마을 일대가 섬진강 지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개인 및 동호회에서 이 길을 많이 찾고 있다.

덕치면 김재기면장은 "올 가을 자전거 길에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을 일리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



이 열렸다면 자전거를 타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유명가수 총 출동

개막공연에 슬리피 · 라봄 · 김범룡 등 무대장식

오는 6일 개막하는 '2018 임실N 치즈축제'에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과 트로트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임실N치즈테마파크를 찾는다.

2018 임실N치즈축제가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그 첫 날인 6일 '여는 치즈'로 화려한 개막공연이 펼쳐진다.

전주MBC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개막식 공연에는 상큼발랄한 여성 아이돌그룹 라봄과 소나무,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예능 대세돌 슬리피, 보기만 해도 안구정화되는 남성 아이돌그룹 TRCNG와 리온파이버가 출연한다.

인기트로트 가수들도 대거 등장한다. 여성 트로트가수로 '부초같은 인생', '사랑의 밧줄'을 불러 잘 알려진 김용임과 전복(부안) 출신 가수 '인동역에서'의 진성, '우연히'의 우연이, 트로트걸 그룹 '데이지'와 '니가 좋더라'의 양모가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다.

이들이 출연하는 개막식 공연은 6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치

즈테마파크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이어 7일 열릴 제8회 최갑석 가요제에도 이름만 들어도 '아하' 할만한 유명가수들이 출연한다.

차트 역주행 아이돌로 '오빠야'로 잘 알려진 실력과 가수 신현희와 김루트, '바람바람바람'의 김범룡과 '보고싶은 얼굴'의 민해경을 비롯해 박진도와 조은성 등이 관객들에게 가을날의 멋진 노래를 선사한다.

넓은 초지와 유럽풍 테마관광지에 펼쳐진 천만송이 이상 국화꽃들이 멋스러운 향연은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있다"며 "모쪼록 많은 분들이 축제장에 오셔서 그윽한 국화향기와 함께 청정임실의 맛있는 안소환우도 맛보시고,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치즈 등 각종 유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내일 보절면 경로 위안잔치

남원시보절면(면장 허관)에서는 6일 면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면사무소가 후원하는 경로위안잔치로 관내 70세이상 어르신 546명을 모시고 보절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100세이상 양해근 어르신께 장수상을 수여하고, 90세이상 은 30명으로 민수무강을 기원하며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2부 행사에서는 전북 국립극원의 국악한마당과 마술쇼, 품바공연, 지역주민의 관소리와 색소폰 공연으로 신명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현기 발전협의회장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행사에 어르신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함께 웃고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허관 보절면장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통령의 글씨 강원국작가

임실군립도서관 초청 강연

임실군립도서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란 주제로 저자초청 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강 강사로는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를 초청했다. 최근에는 신간 '강원국의 글쓰기'를 출간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TV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강연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독려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립도서관(☎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순창장류축제 손님맞이 한창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는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순창장류축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최근 군 영상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남 위원장은 "축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와 실질적인 축제 준비 기

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위임을 모두가 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올해 제13회 순창장류축제는 '올 가을엔 고향장 익어가는 순창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펼쳐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